

코로나-19 관련 정신건강 설문조사(교직원용) 결과 보고



2021. 8.

금오공과대학교
[학 생 상 담 센 터]

코로나-19 관련 정신건강 설문조사(교직원용) 결과 보고

I 추진 목적

- 코로나-19로 인한 구성원의 정신건강 실태 확인을 통해 적극적인 심리방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

II 설문 조사 개요

- 조사 설계
 - 조사 대상: 본교 교직원
(조사 기간 : 2021년 8월 9일(월) ~ 20일(금))
 - 응답 인원: 112명(교수 20명, 직원 92명)
 - 조사 방법: 온라인 설문조사(네이버 오피스 활용)
- 설문조사 내용
 - 우울평가도구(PHQ-9), 불안척도(GAD-7)

세부척도	설문문항
우울	○ 기분이 가라앉거나, 우울하건,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. ○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○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/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○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/ 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○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/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○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○ 내가 잘못했거나,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/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○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. ○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/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
	9개

세부척도	설문문항
불안	○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○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○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○ 편하게 있기가 어렵다 ○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○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성을 내게 된다 ○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

7개

- 평가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함

※ 전혀 그렇지 않다(0점), 며칠 동안(1점), 일주일 이상(2점), 거의 매일(3점)

- ## ○ 만족도 진단 결과 활용

- 코로나-19로 인한 구성원의 정신건강 실태 확인을 통해 적극적인 심리 방역 서비스 제공 및 개선방안 도출

○ 요약

- 학생상담센터는 코로나 19로 인한 교직원의 정신건강 실태 확인을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조사는 2021년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되었고 총 112명의 교직원이 응답하였다.
- 검사도구는 우울평가도구(PHQ-9)와 불안척도(GAD-7)를 사용하였으며, 표준화된 척도를 통해 교직원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을 측정하였다. 조사 결과 우울 86.6%, 불안 94.6%의 교직원은 가벼운 수준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응답인원 중 우울 13.4%, 불안 5.4%의 교직원은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관심이 필요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.
- 2021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본교 교직원의 우울과 불안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연령별 비교를 하였을 때 40대가 우울과 불안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.
- 문항 중 ‘피로(1.06)’, ‘수면문제(0.84)’, ‘걱정이 많음(0.79)’, ‘짜증과 화(0.66)’ 등이 높게 나타났다. 이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우울 및 불안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.

III 설문 조사 결과

교직원

○ 응답 분석

구분	N	%	연령	N	%
교수	20	17.9	20대	11	9.8
직원	92	82.1	30대	52	46.4
성별	N	%	40대	23	20.5
남자	49	43.8	50대	26	23.2
여자	63	56.3			

시사점

- 교직원 응답자 수는 112명이 응답하였으며, 교수는 20명이 응답하였고, 직원은 92명이 응답하였다
- 연령 중 30대가 52명(46.4%)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50대(23.2%)가 높게 응답하였다.

○ 우울



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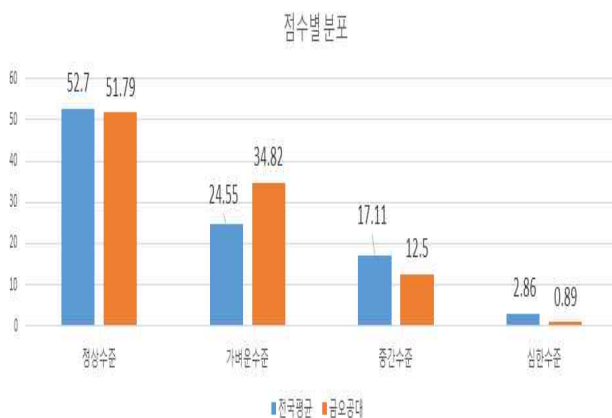
-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(2021) 평균 5.67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.
- 교직원 중 13.4%는 우울 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관심이 필요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.
-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이나 본교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.

○ 연령별 우울



시사점 ■ 연령별 비교에서 40대의 평균 우울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○ 점수별 분포



분류	전국평균	김오공대
정상 수준(0~4점)	52.7	51.8
가벼운 수준(5~9점)	24.55	34.8
중간 수준(10~19점)	17.11	12.5
심한 수준(20점 이상)	2.86	0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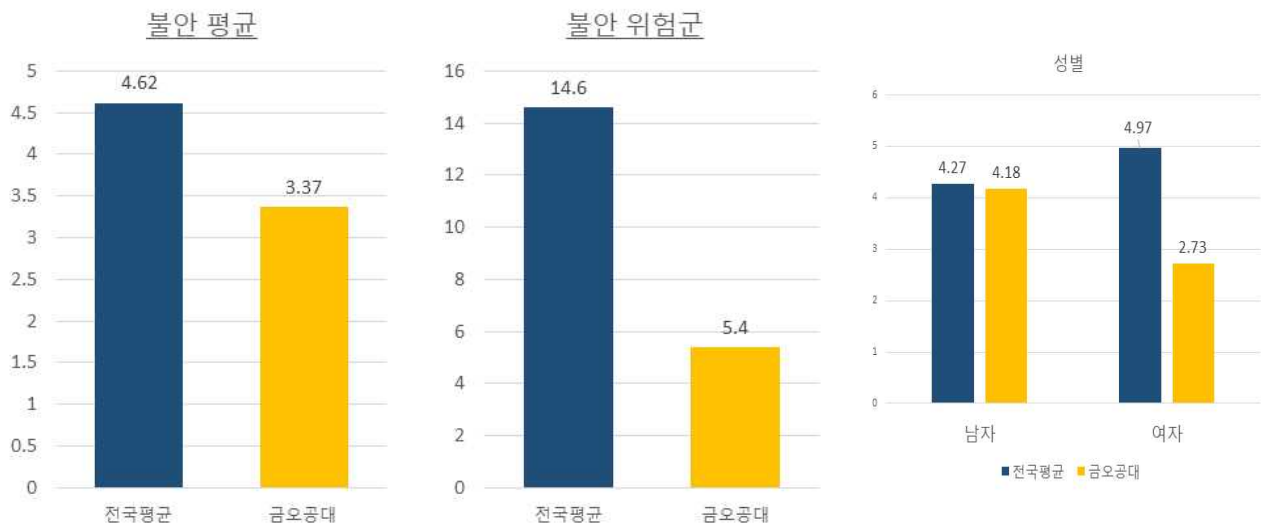
시사점 ■ 대부분의 교직원(86.6%)은 가벼운 수준의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문항별 평균



시사점 ■ 우울증상 중 ‘피로(1.06)’, ‘수면문제(0.84)’ 문항이 높게 나타남

○ 불안



시사점

-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(2021) 평균 4.62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
- 교직원 중 5.4%는 불안 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관심이 필요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
- 교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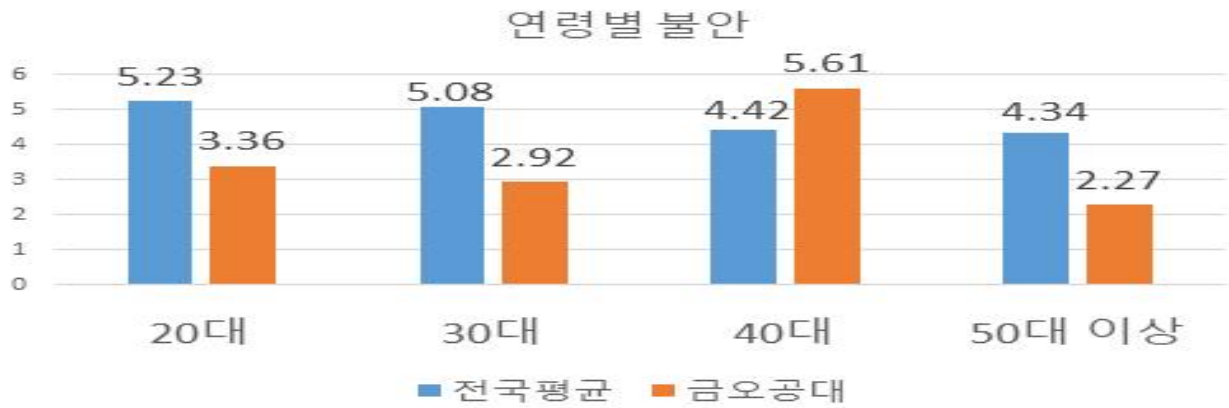
분류

	전국평균	금오공대
정상 수준(0~4점)	52	70.5
가벼운 수준(5~9점)	29	24.1
중간 수준(10~19점)	12.2	5.4
심한 수준(20점 이상)	6.8	0

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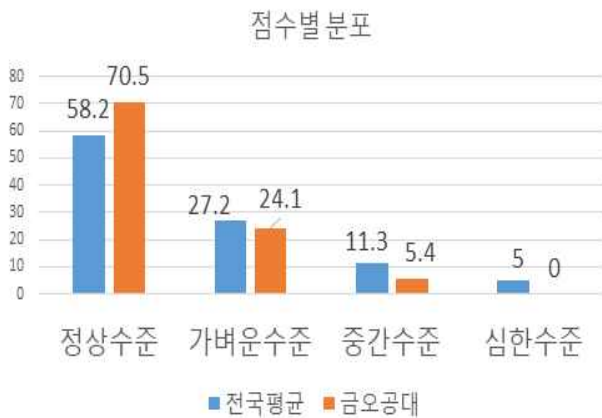
- 대부분의 교직원(94.6%)은 가벼운 수준의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연령별 불안



시사점 ■ 연령별 비교에서 40대의 평균 불안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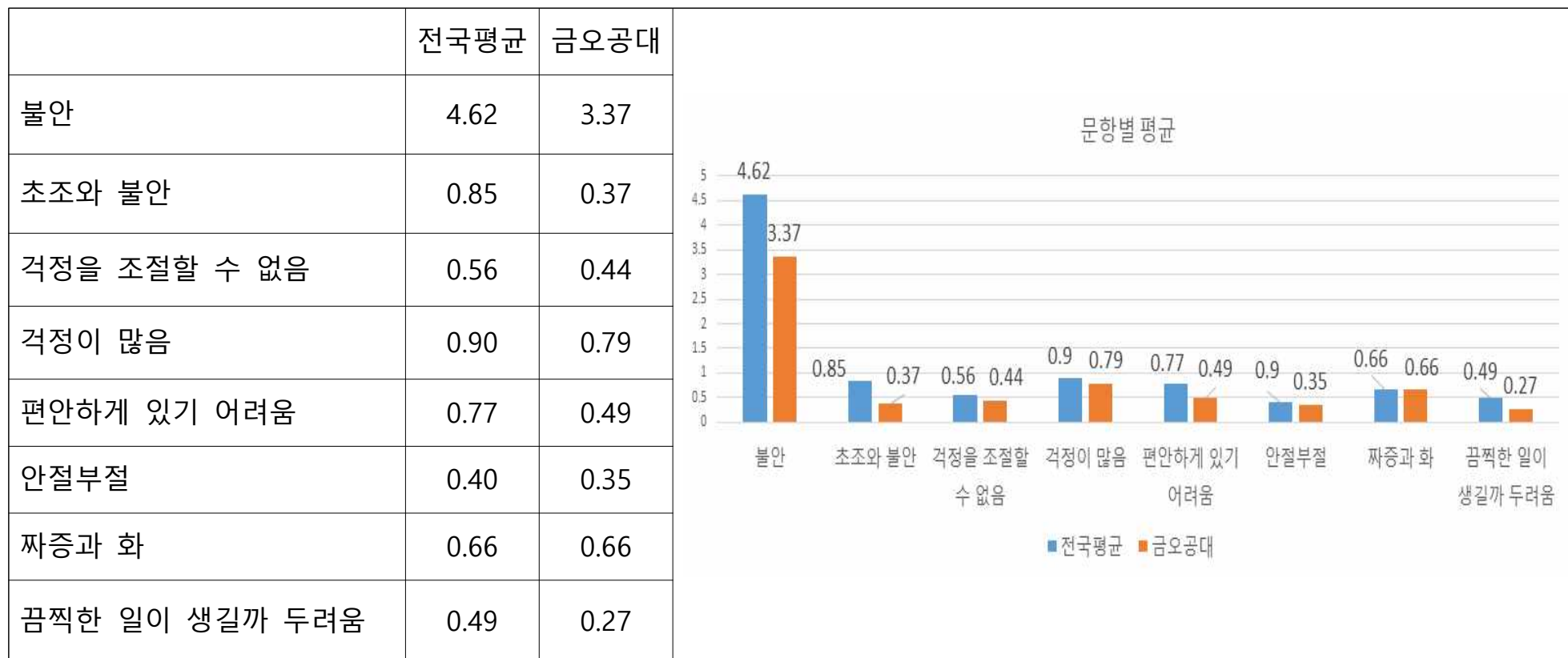
○ 점수별 분포



분류	전국평균	금오공대
정상 수준(0~4점)	58.2	70.5
가벼운 수준(5~9점)	27.2	24.1
중간 수준(10~19점)	11.3	5.4
심한 수준(20점 이상)	5.0	0

시사점 ■ 대부분의 교직원(94.6%)은 가벼운 수준의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문항별 평균



시사점 ■ 불안 증상 중 ‘걱정이 많음(0.79)’, ‘짜증과 화(0.66)’ 문항이 높게 나타남

○ 심리적지지 제공자



☒	☐	응답	응답수
☒	☐	가족	69 61.6%
☒	☐	친구 및 직장동료	25 22.3%
☒	☐	이웃	1 0.9%
☒	☐	정신건강 전문가	1 0.9%
☒	☐	없음	15 13.4%
☒	☐	기타	1 0.9%

시사점
 ■ 심리적지지 제공자로는 ‘가족(61.6%)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.